

은·울·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울탈춤은 약 200~300년 전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추어진 탈춤으로 주로 단오, 석가탄신일, 7월 백중 등에 행해졌다.

이 놀이는 사자춤·상좌춤·8목중춤·양반춤·노승춤·미알할미영감춤 총 6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승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일부처첩(一夫妻妾)의 삼각관계와 서민생활상을 보여준다. 다른 탈춤에 비해 호색적인 표현이 심하며, 양반을 모욕하는 대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 중 3가지 과장을 선보인다.



1. 제1과장 사자춤 : 개장을 알리는 의식무로 탈판의 잡귀를 쫓고 탈판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은율탈춤의 사자는 다리가 여섯개라는 점이 다른 탈춤과 비교할 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3과장 8목중춤 : 불교의 타락성을 풍자하는 과장으로 활발한 황해도 탈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과장이다.

3. 제6과장 미알할미 영감춤 : 미알영감과 할미, 첩 간의 삼각관계를 풍자한 과장으로 영감을 놓고 할미와 첩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할미가 첩에게 떠밀려 죽게 되고 이에 죽은 할미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무당이 등장하여 진오귀굿을 하는 내용으로 굿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출연자

예능보유자 | 차부회, 박일흥

전수조교 | 조용휘

이수자 | 안선균, 서향영, 이종배, 신덕수, 이광수, 권오훈, 전경석, 차민선, 차원철, 조영덕, 조부래, 차은선, 권영기, 이준송

전수자 | 김대환, 최민우, 류태수, 이해정, 이현주

동·래·한·량·춤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2006.12.27지정)

예로부터 동래는 천연온천이 있는 관광지 지역으로 각종 놀이문화가 풍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춤을 중심으로한 풍류꾼들의 예기(藝技)는 일반사람들의 연희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예인으로서 예술적 수준이었다. 특히 동래는 가창(歌唱)이나 음율(音律)보다 춤꾼이 더 성하였고 명무들도 많아서 동래마을이 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동래는 동래관아(東萊官衙)에 소속된 아전들과 천연 온천으로 인한 한량들의 방놀이, 그리고 동래권변에 출입하는 풍류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무악을 즐기는 예향 지역이다.



특히 동래 한량무는 탈놀이인 동래야류 양반과장의 덧배기춤과 사랑방의 멋쟁이 한량들에 의해 연희되었던 입춤 형식의 굿거리 춤이 더해진 춤이다.

특징적 춤사위는 도포자락 놀리는사위, 부채펴는사위, 부채메고 어루는사위, 연풍대사위 등이다. 복식은 양반들의 출입복인 바지저고리에 도포를 착용한다. 반주음악은 삼현육각 또는 사물악기의 굿거리장단에 구음을 얹어 연주한다.

출연자

예능보유자 | 김진홍(무수)

이수자 | 이동재, 박성호, 박상용, 김기원, 김갑용, 전승환

전수장학생 | 배영호, 김동오, 정재성, 이종태, 허태성

동래야류와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수시
- 접수처 동래야류보존회
- 문의전화 ☎ 051-555-0092
051-556-0192
FAX 051-556-2786
- 홈페이지 www.pusanminsok.or.kr
- 메일주소 92@pusanminsok.or.kr



제3회 탈춤으로 추석맞이 전통민속 한마당

2014년 8월 30일(일) 오후 3시

부산역 중앙광장



공연프로그램

- 중요무형문화재제18호 동래야류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주최·주관 | 동래야류보존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협 · 회 · 연 · 혁

- 1934.02.20 : 동래야류발표공연(동래줄다리기 대회(동.서부))
- 1946.03.01 : 동래야류 3.1운동기념공연
- 1965.05.01 : 동래기영회 주선으로 동래야류 공연자 결성
- 1965.08. : 동래민속연구소 창설
- 1965.10.31 : 제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동래야류 : 대통령상 수상)
- 1966.05.01 : 동래기영회에서 부산민속예술보존회로 개칭하여 재결성
- 1966.10. : 동래야류보존회 창설
- 1967.12.21 :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동래야류 지정
- 1968.05.03 : 제1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발표공연 (동래금강공원)
- 1968.07.05 : 부산, 놀원문화상 단체상 수상(동래야류)
- 1969.03.24 :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로 개칭 법인으로 등기
- 1971.04.16 : 동래야류 전수관 건립 착공
- 1972.09.19 : 동래학춤(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 1972.10.03 :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동래지신밧기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74.07.01 : 동래 금강공원 내 민속예술 전수관 준공으로 본 협회 이전
- 1977.12.11 : 동래지신밧기(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
- 1978.10.03 :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동래지신밧기(단체 장려상 수상)
- 1981.10.03 :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동래학춤(단체 장려상 수상)
- 1983.04.22 : 동래야류, 동래학춤 해외공연(대만 고ungs시)
- 1987.05.03 : 일본 히로시마 평화의 꽃잔치 참가 <동래야류 · 동래학춤 · 동래고무 공연>
- 1988.10. :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동래고무(장려상 수상)
- 1993.12.31 :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지정
- 1996.10.15 : <동래한량춤> 제37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
- 2003.11.12 : <동래야류,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사물놀이>미국 4개 도시특별순회공연
- 2006.12.27 :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지정
- 2012.09.13 : 전주세계소리축제 축하공연(동래학춤)
- 1965~현재 : 매년 (1~49회)동래민속예술축제(동래야류,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동래고무)
- 1975~현재 : 매년(1~39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대회 (일반부 · 고등부 : 대통령상 수상)
- 1990~현재 : (매년)동래학춤 특별 강습회 개강
- 2011~현재 : 년 2기(~26기)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 개설운영 (동래학춤 외 11개반)
- 2012~현재 : (매년)탈춤으로 추석맞이 전통민속 한 마당(동래야류 등)공연
- 2012~현재 : 열쑤 동래! 전통민속예술 한 마당 (상설공연 : 매월 넷째주 일요일)

동 · 래 · 야 · 류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1967. 12. 21 지정)

동래야류는 한국 가면놀이 중 남부형인 야류, 오광대 계열이다. 초계 밤마리에서 대광대패들에 의해 놀았던 탈놀음이 낙동강 동쪽으로 전파되어 신반, 진주, 마산(창원), 수영을 거쳐 동래로 유입되어 동래의 지역성이 진하게 배어 있는 도시형 탈놀음이다.



동래야류는 한국 전통 연극양식으로 가무악이 복합된 연희형태이며, 서민들이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 골계적인 재담과 몸짓으로 양반들을 희롱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내는 내용이다. 해학성이 진하게 깔려있고 유식한 문장으로 재담을 풀어내어 격조 있는 멋으로 연희를 풀어가는 묘미가 특징이다.

웅박캐깅 굿거리장단에 덧배기춤과 배김사위가 일품이며, 특히 말뚝이 재담과 말뚝이 탈은 동래야류의 가장 큰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행과정은 모두 다섯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군무과장 2.문둥이과장 3.양반과장 4.영노과장 5.할미 영감과장 이다. 동래야류는 현재 부산의 10가지 자랑 중 하나로 공식 선정되어 있다.

출연자

예능보유자 | 이도근(차양반), 김경화(모양반)
 전 수 조 교 | 정영배, 백정강, 이순규, 손심심, 문종수, 이춘실
 이 수 자 | 신상식, 이기원, 이돈희, 김익현, 오미숙, 이미경, 한정숙, 김순선, 김수근, 김영도, 조용황, 박민순, 정진화, 박성호, 정재욱, 윤현준, 정현섭, 김연희, 이해철
 전 수 생 | 강태욱, 김재규, 김이대, 옥금주, 조도근, 윤정미, 이동현, 이수진, 김덕상, 김예신, 이종님

구성 및 내용

군무과장 | 모든 연희자가 나와 한바탕 흥돋우기를 위해 즉흥춤을 추는 과장이다.

1. 문둥이과장



대사없이 춤으로만 연희되며, 양반의 자손으로서 조상들의 누적된 죄과의 인연으로 불치의 문둥병에 걸려 출세하지 못하는 골수에 맺힌 원한과 비분의 통탄을 춤으로써 표현한다.

2. 양반과장



말뚝이 재담의 장으로 무능하고 허례허식에 찬 다섯 양반들이 하인 말뚝이에게 갖은아유와 모욕과 신랄한 풍자를 당하는 내용이며 말뚝이는 익살과 해학으로 양반을 여지없이 조롱하며 양반에 대한 평민의 반항을 줄거리로 하는 내용이다.

3. 영노과장

영노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반인반수의 상상의 괴물로서 양반 아흔아홉을 잡아 먹고 양반 하나만 더 잡아 먹으면 등천하게 되므로 놀이판에 나타나 양반을 잡아 먹는다라는 희화적인 내용의 과장이다.



4. 할미 · 영감과장



영감의 본처인 할미 그리고 첩인 제대각시가 펼치는 애정의 삼각관계를 다룬 처첩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